

클래식 명곡 산책 - 15 - 육중주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현악육중주 / 출처 : www.juilliard.edu



음악 듣기
(goo.gl/beu9Ju)

이제 하나가 더해진 육중주입니다. 화음이 보다 풍부해지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연주자가 많아지면 화음만으로는 매력을 충분히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없지요. 두 팀 혹은 세 팀으로 나누어져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기도 하구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배합하여 화려한 음색의 유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현악기만으로 구성된 두 곡의 현악육중주곡과 함께, 다양한 악기로 화려한 음색과 리듬의 세계를 들려주는 작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으로부터 또 다른 감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1840~93) : 피렌체의 추억 (1890)

Pyotr Tchaikovsky: Souvenir de Florence, Op. 70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과 협주곡, 발레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의 수많은 대부분의 작품을 잊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교향곡 중 1번부터 3번까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고,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자주 연주되지만, 피아노 협주곡이 (비록 미완성이지만) 3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악사중주는 유명한 ‘안단테 칸타빌레’가 포함된 1번은 잘 알려졌지만, 멀쩡하게 존재하는 2번과 3번은 외면을 받고 있죠. 이렇게 차이코프스키의 많은 모습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현악육중주 <피렌체의 추억>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 출처 : www.bbc.co.uk

그나마 종종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지만, 차이코프스키의 실내악 자체가 무대에서 소외되어있다는 점에서 이 곡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의 가려진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마지막 실내악곡인 <피렌체의 추억>은 1890년 초에 방문했던 피렌체를 추억하며 그해 6월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2년이 더 지난 1892년 11월에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곡의 첫 악장에 대해 ‘상당히 활기 있게’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서주 없이 시작하자마자 터져 나오는 거칠고 공격적인 바이올린 주제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악장의 코다에는 이 곡을 쓰기 직전에 피렌체에서 완성된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의 두 주제가 인

용되어있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는 비올라와 첼로의 중저음 반주를 활용하여 차분하고 풍부한 음향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피치카토 반주 위에서 연주되는 순수하고 낭만적인 멜로디는 유명한 <현악사중주 1번> 2악장의 ‘안단테 칸타빌레’를 연상시킵니다. 3악장은 당시 잘 알려진 대중적인 선율에 바탕을 둔 비올라의 주제가 전체를 지배하며, 4악장은 러시아 민속음악 스타일의 무곡 풍 주제가 등장합니다.

아르놀트 쇤베르크 (1874~1951) : 정화된 밤 (1899)

Arnold Schönberg: Verklärte Nacht, op. 4

20세기 초, 말러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마지막 낭만주의자로서 나름대로 조성의 틀을 유지했지만, 쇤베르크는 과감히 이를 깨뜨려 구시대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청취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청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주저했고, 이후로 현대음악은 청중을 외면한 음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쇤베르크는 무조음악을 작곡하기 전에는 열렬한 바그너 숭배자였으며 브람스 애호가였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을 지휘할 때는 (그들의 능력을 크게 상회하는) 브람스의 합창곡을 연주하였으며, 작곡할 때에는 <구레의 노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등 바그너의 영향이 짙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작곡했던 것이죠.

1899년에 작곡된 현악육중주곡 <정화된 밤>은 이러한 시기의 작품으로, 현악육중주라는 점에서 브람스를 연상시키고, 두터운 화음은 바그너를 연상시킵니다. 이 곡은 표현주의 문학가인 리하르트 데멜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연인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뱃다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은 남자는 온 세상이 그 아이를 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용서한다는 내용이지요. 쇤베르크의 음악은 시의 내용에 따라 전개되는 프로그램 음악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시가 주는 인상을 음악적인 이미지로 옮긴 환상곡에 가깝습니다. 다섯 악장을 갖고 있으나 쉽 없이 연주되며, 고전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인 심상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화성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고 두터우며, 명료한 색채감으로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초연은 1902년 3월 18일 로제 사중주단과 빈 필하모닉 단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1917년에 작곡가 자신에 의해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되었으며, 194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정화된 밤>은 쇤베



아르놀트 쇤베르크
/ 출처 : www.nytimes.com

르크가 일생을 걸쳐 다듬은 역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곡은 발표 당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남의 아이를 뱀 연인을 용서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문질러서 더럽힌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후자의 평가는 크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연상시키는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혹독한 비판이 다혈질의 젊은 쇤베르크를 무조음악으로 내몰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화된 밤>은 이 시기의 그 어떤 곡보다 유명하고, 쇤베르크의 어떤 곡보다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보후슬라프 마르티누

/ 출처 : chicagoclassicalreview.com

보후슬라프 마르티누 (1890~1959) : 부엌 이야기 (1927/30)

Bohuslav Martinů: La revue de cuisine

<부엌 이야기>는 체코 출신의 마르티누가 파리에서 활동하던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부엌의 여러 기구가 사람처럼 사는 이야기를 꾸민 1막 길이의 소규모 발레곡이죠. 물병과 병뚜껑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물병은 매너 좋은 젓가락의 꼬임에 넘어가 병뚜껑과 헤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행주가 병뚜껑에 접근하였고, 빗자루도 이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물병은 젓가락에 싫증을 느끼고 병뚜껑을 그리워하였지만 병뚜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나타난 큰 발이 병뚜껑을 무대 위로 차 넣어 둘이 재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젓가락은 행주와 함께 떠납니다.

본래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여섯 악기를 위한 10개의 곡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1930년에 네 곡을 추려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곡은 당시 파리에서 열풍이 불었던 재즈 스타일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악곡의 형식뿐만 아니라 악기 사용의 측면에서도 재즈를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한 곡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시스 폴렝크 (1899~1963) : 피아노와 목관오중주를 위한 육중주 (1931/39)

Francis Poulenc: Sextuor pour piano et quintette à vent, FP100

피아노와 목관오중주(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혼)를 위한 <육중주>는 프랑스 작곡가 폴렝크의 목관 작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젊은 시절 특유의 남다른 유머감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더 체스터리안’ 지에 기고된 1931년 6월 19일 초연 리뷰는 이 연주회에서 연주된 폴렝크의 곡 중 ‘이지적이고 사랑스러운’ 두 작품 중 하나라고 평했죠. 하지만 폴렝크는 초연 이후 이 곡을 자주 수정했으며, 8년이 지난 1939년에야 최종판을 완성했습니다. 그해 8월 29일 마리-블랑슈 폴리냑에게 보낸 편지에 “<육중주>를 전체적으로 수정했고 지금은 매우 좋다”고 썼습니다. 첫 악장은 지시어대로 “매우 빠르게, 그리고 화난 듯이” 돌진합니다. “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도 목표지점에 곧바로 메시지를



프랑시스 폴렝크

/ 출처 : www.wqxr.org

전하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음악을 알지 못한다.”고 평했던 미요의 언급을 이 악장에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2악장은 휴식과 같은 디베르티스망으로서 모차르트를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3악장은 거칠고 몹시 빠르게 돌진한 후, 마치 다른 세계에 빠져든 듯 매우 느리고 조용히 엄숙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 곡에는 가

벼움과 진지함, 그리고 과감하고 거친 제스처와 유연하고 고상한 화음이 공존합니다. 폴렝크의 여느 작품들처럼 선율의 창의적인 변화와 발전이 관객들을 집중하게 함은 물론이죠. 폴렝크의 전기작가인 칼 슈미트가 <육중주>를 “폴렝크의 커리어에서 가장 복잡하게 작곡된 전설적인 작품 중 하나”라고 평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스티브 라이시 (1936~) : 타악기와 건반악기를 위한 육중주 (1984/85)

Steve Reich: Sextet for percussion and keyboards

미국 작곡가 스티브 라이시는 1960년대 후반에 <바이올린 위상>과 <네 개의 오르간> 등 주어진 단편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미묘한 리듬의 운동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가물란과 아프리카 음악을 연구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복잡한 리듬의 진행을 가진 <드러밍>과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 등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들은 라이시가 리듬뿐만 아니라 음색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1960~70년대 라이시의 음악은 리듬과 음색이라는 기본적 요소에 충실하기 때문에 ‘순수한 미니멀 음악’ 혹은 ‘진행 음악’(Process Music)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티브 라이시
/ 출처 : slatethedisco.com

<6중주>는 주어진 단편을 수없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음악으로, 여러모로 <드러밍>(1971)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많습니다. 12박자를 바탕으로 3박자 혹은 4박자의 복합 리듬으로 연주되는 아프리카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주자들이 주어진 패턴을 더해가면서 전체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드러밍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6중주>는 연주자에게 자유를 허용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네 명의 타악기 연주자와 두 명의 건반악기 연주자가 마림바 세 대와 비브라폰 두 대, 베이스드럼 두 개, 크로탈(가물란 음악에 사용되는 작은 금속원판), 스틱, 탐탐, 두 대의 피아노, 두 대의 신시사이저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를 통해 음악은 리듬뿐만 아니라 음색의 변화를 듣게 되며, 결국 감상자는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인 재조합을 통해 선율과 반주의 형태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시가 이 곡에 장치해 둔 모호성은 무엇이 멜로디이고 무엇이 반주인지를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리듬과 음색뿐만 아니라 화성도 보다 진지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6중주>가 <드러밍>보다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같은 해에 작곡된 <사막 음악>에서 보여준 단순한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충돌이 이 곡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사막 음악>의 오르간 풍의 합창은 <6중주>에서 신시사이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중주>는

<사막 음악>의 실내악 버전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군요. 이 곡은 약 30분 길이로써, ‘빠르게-보통 빠르기-느리게-보통 빠르기-빠르게’로 다섯 부분이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진행과 함께 신비한 리듬의 세계로 빠져들 것입니다. 🎧



라이시의 <육중주> 연주 모습 / 출처 : commons.wikipedia.org